

국 어

문 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우리 집은 일 년에 두 번씩 김치를 담궜다.
- ② 새로운 회사에서 희한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 ③ 우리는 범죄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④ 세탁소에서 양복바지의 헤어진 부분에 짜집기를 하였다.

문 2. ㉠, ㉡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 국어의 합성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란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합성어를 의미하며,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형성되는 합성어를 의미한다.

- |        |     |
|--------|-----|
| ㉠      | ㉡   |
| ① 굶주리다 | 곧잘  |
| ② 뛰놀다  | 덧밥  |
| ③ 큰집   | 굳세다 |
| ④ 힘들다  | 여름밤 |

문 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은 아이의 소질을 계발(啓發)하였다.
- ② 그 장소에는 그가 말한 물건이 실재(實在)하였다.
- ③ 상사는 부하 직원의 휴가 서류를 결재(決裁)하였다.
- ④ 새 기계를 사용하여 서울 공장의 생산량을 재고(再考)하였다.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는 표현법을 사동이라 하고, 사동이 표현된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 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② 철호가 몸짓으로 나를 웃겼다.
- ③ 영애가 민수를 기쁘게 하였다.
- ④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문 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댁(媿宅)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 ② 여행을 가려면 부모님의 승락(承諾)이 있어야 하였다.
- ③ 아버지가 동생의 철없는 행동을 듣고는 분노(忿怒)하였다.
- ④ 그는 사건의 문제점을 찾는 데 통찰력(洞察力)을 발휘하였다.

문 6.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님이 상인에게 흥정을 부쳤다.
- ② 여자 친구와 우산을 함께 받치고 걸었다.
- ③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이동하였다.
- ④ 동생이 행인과 싸움을 벌어서 일이 커지고 말았다.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詩文)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하므로,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의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길는 아낙네들이 소리 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속되고 촌스럽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정녕 공부하는 선비들의 이른바 시부(詩賦)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김만중, 『서포만필』에서 —

- ① 나무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민간의 노래가 속되고 촌스럽다고 보는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 ③ 아낙네들의 노래는 앵무새의 노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공부하는 선비의 시부가 민간의 노래보다 참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8.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선생님, 이번 축제 기간에 저희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부스를 홍보하고 싶은데, 포스터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선생님께 여쭙 보고 싶어요. 저에게 지금 시간 좀 내 주세요.

교사: 그래? 너희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선 뭘 하는지 궁금하구나.

학생: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만든 스마트폰 앱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게임,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교사: 와! 재미있겠는걸. 그럼 동아리 부스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싶니?

학생: 어떤 체험용 앱이 있는지 소개하고,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알리고 싶어요. 그런데 포스터로 우리가 만든 앱이 뛰어나다는 걸 잘 전달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예요.

교사: 맞아. 네 말대로 스마트폰과 포스터는 전달 방식이 다르니 쉽지 않지. 그럼 우선 앱 자체에 대한 소개는 포스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대신 홍보 포스터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내용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학생: 그렇다면 현재 동아리에 관련 대회 입상자가 많다는 것을 홍보해야겠어요. 앱 소개는 앱 실행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두고 검색 주소를 안내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 ① 교사는 학생의 말에 대한 공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③ 학생은 교사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질문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 ④ 교사는 제안하기를 통해 학생이 대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 9.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동물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한다. 가령 늑대 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아야만 꼬리를 세울 수 있다. 지위가 낮은 늑대는 항상 꼬리를 감아 말고 있어야 한다. 만약 힘이 센 늑대에게 힘이 약한 늑대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으면 힘이 센 늑대는 싸우자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분류
- ② 서사
- ③ 예시
- ④ 정의

문 10. ㉠ ~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디어의 영향 아래에 ㉠ 놓여진 대중은 자신의 신념과 사고 활동의 번거로움을 포기하고 모든 평가와 판단을 ㉡ 미디어에 맡긴다. 자신의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에 양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 그래서 그들은 세상 밖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 못할뿐만 아니라 인생의 깊이도 얻지 못할 것이다.

- ① ㉠은 이중피동이 사용되었으므로 ‘놓인’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미디어를 배격한다’로 고쳐 쓴다.
- ③ ㉢은 접속부사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그러나’로 고쳐 쓴다.
- ④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못할 뿐만’으로 고쳐 쓴다.

문 11.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경 10킬로미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 사이였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고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 반면 지금의 도시민들은 어디를 가든 내가 모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 일상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는 ‘군중 속의 자유’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 갔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집에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인들이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게 우리의 도시 생활이다.

- ①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더 넓은 반경의 공간을 경험하고 있다.
- ②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살던 곳을 벗어나 해외여행을 떠나야 한다.
- ③ 현대인들은 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이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④ 도시에 살게 되면서 익명성에 따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 12. 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耜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충담사, 「찬기과랑가」 —

- ① 기과랑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 ② 10구체 향가로서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기과랑의 고매한 인품을 구체적인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④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감정을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때 조정에 있던 무장 중에서 신립과 이일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경상우병사 조대곤은 늙고 용맹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장수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나(류성룡)는 경연 자리에서 조대곤 대신 이일에게 그 임무를 맡길 것을 아뢰었는데, 병조판서 홍여순은 “명성 있는 장군은 당연히 도읍에 있어야 하기에 이일을 파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다시 아뢰었다.

“무릇 일이란 미리 준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군대를 다스리고 적을 막는 일은 절대로 급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면 결국 이일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보내야 한다면 하루라도 일찍 보내서 미리 난리에 대비하게 해야 이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곳의 장수를 급히 내려 보낸다면, 그는 파견된 지방의 지리에 밝지 못하고 그 지방 병사들이 용맹한지 비겁한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병법에서 꺼리는 일이니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

— 류성룡, 『징비록』에서 —

- ① 당시 사람들은 조대곤이 장수로서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 ② 홍여순은 도읍 방어를 지방 방어보다 중시하였다.
- ③ 류성룡은 지방 병사들의 훈련 부족을 지적하였다.
- ④ 임금은 류성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독서율이 8.4 %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평균이 20.2 %인 것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편이다. 독서가 인간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이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독서 소외인, 즉,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위한 독서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포용적 독서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초등 저학년 대상의 책 꾸러미 프로그램과 함께 독서 소외인의 실태를 고려한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약 지역의 작은 도서관 설치, 순회 독서활동가의 파견, 점자 및 수화영상 도서 보급, 병영 도서관 확충, 교정 시설에 대한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 ①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평균 독서율과 차이가 없다.
- ②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글 해득을 완전히 숙달하지 못해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 속하므로 독서 소외인에 해당한다.
- ③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독서 소외인에 해당한다.
- ④ 군 장병의 독서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

문 1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독자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도전은 다음과 같은 환경적 특징 때문에 생겨난다.

디지털은 (가)이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정보 창고인 도서관은 ‘작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쓴 책을 선호한다. 대부분의 인쇄 서적들은 사업 인가를 받은 출판사가 기획하고 발행한다. 오프라인에는 전문가들이 도서를 검토, 평가, 선택하는 일련의 절차가 존재한다. 반면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 정돈된 메시지를 섬세하게 디자인하여 공유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자신이 생산한 것들을 게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 출판, 검토, 비평, 선정이라는 중간 과정이 생략된다.

- ① 검증되지 않은 공간
- ② 몰입할 수 있는 공간
- ③ 정교한 중간 과정이 있는 공간
- ④ 전문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공간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는 도로 폭이 2미터 6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보행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도로가 더 좁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등·하교할 때 통학로를 지나는 차를 만나면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물론 저희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방과 후에 주민들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통학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다면 저희 학교 700여 명의 학생들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고, 선생님과 학부모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주민들도 넓어진 통학로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입니다.

- 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와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 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문제 해결 방안이 최선책임을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문 17.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 ①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유사한 구조를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단정과 다짐의 어조로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다.

문 18. (가)를 기준으로 볼 때 (나)의 대화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공적인 대화에는 일반적으로 ‘시작—중심—종결’의 3단계 구조가 적용된다.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중심’ 단계에서는 대화할 사항이 되는지, 어떻게 대화할지 등 대화 규칙을 의논하여 정하고, 이후 화제에 대해 대화한다.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마무리 인사를 하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나) (복도에서 반 친구를 만난 상황)

학생 1: ㉠ 안녕, 일찍 왔네.

학생 2: 응, 너도 일찍 왔구나.

학생 1: ㉡ 노트 좀 빌려줘. 내가 어제 수업을 못 들었어.

학생 2: 그래? 근데 나 지금 바로 교무실 가 봐야 하는데. 나중에 교실에서 줄게.

학생 1: ㉢ 잠깐만. 어제는 진도 얼마나 나왔니?

학생 2: 조금. 어...

학생 1: 볼 게 많아?

학생 2: 어..., 조금... 시간 다 돼서 급한데..., 다녀올게.

학생 1: ㉣ 응, 잘 다녀와.

- ① ㉠: 아침에 만나 처음 대화를 시작하므로 인사를 더욱 다정하게 해야 한다.
- ② ㉡: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보고 어떻게 대화할지를 정해야 한다.
- ③ ㉢: 대화 규칙을 정하기 전에 화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
- ④ ㉣: 이번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대화 약속 시간을 정해야 한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기기억에는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이 있다. 서술기억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저장하는 일화기억과 사실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의미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비서술기억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습득하는 운동기술이나 습관 등의 기억이다.

뇌의 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질환군인 치매는 기억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감소시킨다. 치매에 걸리면 자신의 일화기억과 의미기억 모두와 단절된다. 또한 이전에 없었던 사실이나 정보를 새롭게 학습하여 기억하는 것도 어렵다. 요리, 금융거래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혼자서 옷 입기와 같은 자기 관리 능력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치매의 약 50 ~ 60 %에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의 광범위한 변성에서 비롯되는 지적 능력 및 성격의 진행성 퇴화 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친숙한 장소 근처에서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병이 진행될수록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화를 잘 내고 자기 관리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

- ① 최근에 읽은 책 내용에 대한 기억은 서술기억이다.
- ② 치매에 걸린 사람은 서술기억을 상실하게 된다.
- ③ 알츠하이머병은 지적 능력이 퇴화되는 질환이다.
- ④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더라도 자기 관리 능력이 강화된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부분 줄거리] 1930년대 서울, 지주이자 구두쇠인 윤 직원 영감은 손자들이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 유학 중인 손자 중학이 경시청에 체포되었다는 전보를 받는다.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닌 다 지나가고오 .....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히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히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별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팔팔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 착착 깎아 죽일 놈! .....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 년 지녁을 살리라구 헐걸! 백 년 지녁 살리라구 헐 데여 ..... 오냐, 그놈을 삼천 석 거리는 직분(分財)히여 줄라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 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으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으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 채만식, 「태평천하」에서 —

※ 영각: 소가 길게 우는 소리.

※ 동병: 군사를 일으킴.

※ 가권: 식구.

※ 상성: 본래의 성질을 잃어 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됨.

- ① ‘윤 직원’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인물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윤 직원’은 상속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고 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서술자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